

다우코닝, 실리콘고무 생산 확대!

DCTS와 중국에 새로운 벤처기업 설립 ... 상하이에서 제조시설 운영

Dow-Corning은 Dow-Corning Toray Silicone(DCTS)과 합작으로 중국 상하이에 별도법인을 설립해 실리콘 고무를 생산할 방침이다.

2003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링다오실리콘은 중국, 홍콩, 타이완, 한국, 인디아 등의 아시아 지역 고무산업 고객들이 더욱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제품 구매와 서비스 및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링다오 실리콘의 담당자 Jisan Lin은 고무산업의 첨단 기술과 생산능력을 최대한 활용해 상하이의 민항 지역에 새로운 제조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솔루션을 시장에 제공하고 다우코닝의 고객 및 잠재 고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 밝혔다.

링다오 실리콘의 제품라인은 다우코닝의 고객 서비스 제공을 가속화하며 키패드, 일반 고무 몰딩 실리콘, 전선용 와이어와 케이블, 난연성 고무, 내유성 고무 등의 제품 경쟁력을 향상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우코닝 도레이 실리콘은 다우코닝과 토레이의 합작기업으로 1966년 설립됐으며 일본의 실리콘 소재 제품 공급기업의 선두자이다.

다우코닝은 Dow Chemical과 Corning의 50대50 합작기업으로 매출의 절반 이상이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시아지역에는 일본, 중국, 한국, 타이, 인디아에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다. <황현혜 기자>

<Chemical Journal 2003/04/10>